

 보건복지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20. 4. 13 / (총 3매)	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
과 장	임 은 정	전 화	044-202-2360
담 당 자	박 정 명		044-202-2352

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미국에 공유

- 박능후 장관,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화 회의 (4.13) -

□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(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)은 4월 13일(월) 21시 알렉스 엠 에이자(Alex M. Azar)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며 우리의 △진단검사, △접촉자 추적(Tracing), △재양성 사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○ 박능후 장관은 발병 초기에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을 감안할 때, 조기 발견 및 감염 차단이 중요하며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은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(RT-PCR) 검사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,

○ 체계적인 역학조사 전문 인력과 조직*의 구축·운영 및 IT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 등에 대해 소개하였다.

* 질병관리본부에서 ‘역학조사 즉각 대응팀’ 30개를 구성·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 자체 역학조사팀과 유기적으로 업무 분담

○ 또한 감염병 발병 초기에 검사방법을 개발하고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,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한 우리의 경험을 언급하였다.

- 아울러 격리 해제 이후 재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, 현재까지 재양성 사례에 의한 감염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.
- 알렉스 엠 에이자(Alex M. Azar)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경험과 정보 공유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, 앞으로도 양국 간 깊은 신뢰 관계와 파트너십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을 더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전화 회의를 마치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경험 공유, 지속적 협력을 통해 두 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고 언급하였다.

< 참고 >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인적사항

참고

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인적사항

성명	Alex M. Azar II (알렉스 엠 에이자)		
생년월일	1967 (54세)		
주요 학력	○ 다트머스대 경제학 전공 ○ 예일대 법학 학위 취득		
주요 경력	○ 2001-2005 보건복지부 법률 고문 ○ 2005-2007 보건복지부 차관(Deputy Secretary) ○ 2007-2011 Eli Lilly and Company(글로벌제약사) 선임 임원 ○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(Antonin Scalia) 사법보조인 (Clerk) 근무 ○ 2018-현재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(Secretary)		